

2022 봄

제218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위로 사랑하여라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21명



• 독일 신정호 미카엘 (P.04)

•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신광수 베드로 (P.11)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성천 스테파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재원 베드로사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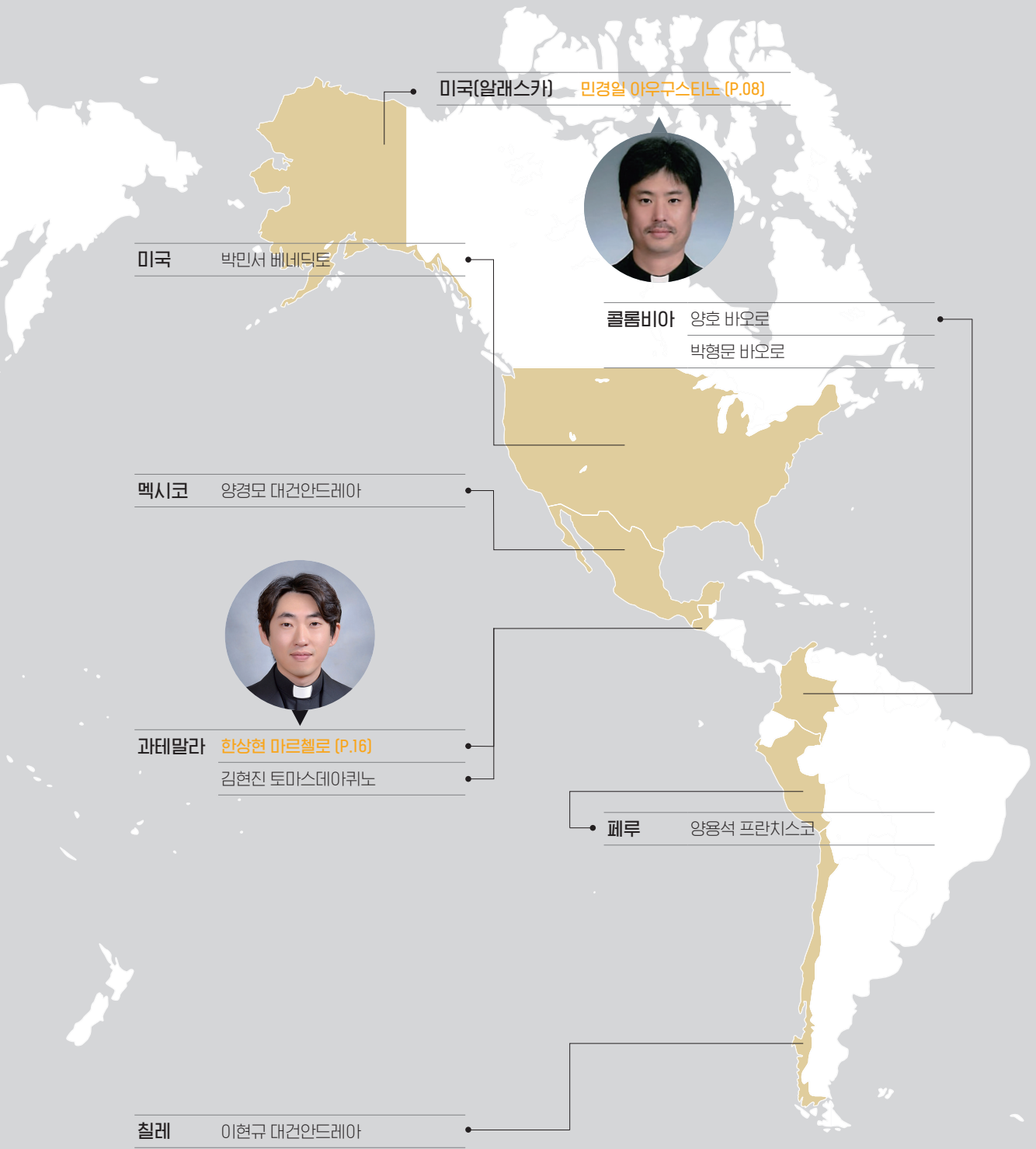
김경진 베드로



보호 특집

1.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일본 신광수 신부님 (p.11)

2.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 페루, 멕시코 최우주 신부님 (p.18)





선교지
이야기

독일



신정훈 미카엘 신부

뮌헨-프라이징 대교구
상트 막시밀리안 성당

해외 선교에 관심을 지니신 독자분들, 또 해외 선교를 후원해 주시는 독지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 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달력을 넘기면서 본당에서 겪은 일, 개인 생활에서 겪은 일, 또 독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염병 시기의 셋방살이

저희 본당의 대성당이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석면 제

독일

수도 베를린

면적 357,022km²
[세계 62위,
한반도의 약 1.6배]

인구 8,314만 9,300명
[세계 19위]

종교 가톨릭 27.7%
개신교 31.7%
이슬람교 1.9%
동방정교회 1.3%
기타 1.7%

성인 97명

복자 133명

수호 성 보니파시오

성인 성 조지
성 베드로 카니시오
성 안스가리오

관할 구역 대교구 7개, 교구 20개
군종교구 1개

거 공사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1950년대 단열을 위해 석면을 사용했는데 석면이 그사이에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공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 미사 등 작은 행사를 위해 소성당으로 꾸민 작은 경당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일미사는 근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성당, 또 시내의 컨벤션 센터와 파울라너나 호프 브로이 등 맥주 회사의 대형 홀을 빌려, 혹은 야외에서 봉헌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은 모두 비어 있었고, 참석 인원은 120명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매번 관공서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성지 주일 행렬에는 본당 신부님과 십자가를 든 사람만이 악기 연주자의 동반을 받으며 참여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건물 안에서 그분들의 도착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영성체 또한 한 날에 할 수 없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매 주일미사에 3명에서 6명의 어린이가 첫영성체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손님 없이 가족끼리 첫영성체를 축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6월부터는 한 어린이가 30명의 손님을 초대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의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유아세례와 혼배로 매 주말이 채워졌고 9월과 10월에는 14명의 청소년과 함께 그들의 견진성사를 준비했습니다. 10월에 다시 대성당에 입당할 수 있었지만 11월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교중미사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 회복자와 검사를 받은 이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고 견진성사 당일에는 견진을 주시기로 하셨던 추기경님이 코로나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적지 않은 분이 감염되었고, 저도 코로나를 살짝 겪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한 해였지만 본당 공동체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힘을 잃은 현재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터널을 곧 벗어난다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느낀 이웃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곧 펼쳐지겠지요.

2. 낯설어진 가족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의 방문이 없다가 2021년 3월에는 서울에서 첫



손님이, 6월에는 로마에서 신부님들이, 7월에는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여름 작은 사제관에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오셨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지내는 것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주 영상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여쭙었지만, 저에게도 또 어머니에게도 서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향수병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았지만, 향수병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동료 신부님들이 늘 다녀가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것은 향수병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왕래가 사라지면서 생긴 낯섦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몸을 부대끼고 마지막으로 지낸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지내지 않으면 낯설어진다는 것을, 현실과 다른 옛 기억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동안 낯섦이 사라졌는지 저는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서울서 열심히 독일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3. 변화하는 교회, 각성하는 신앙인

2021년 3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인 쾰른 대교구가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았고, 그 결과 여러 주교님이 휴직하셨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0일에는 제가 일을 하는 뮌헨 대교구의 같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임 교구장인 베네딕토 교황님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졌고 많은 신자가 실망을 겪었습니다. 대략 두 주간 동안은 제의를 입고 신자들 앞에서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 사제로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렸고, 신자분들은 제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 언표했다는 사실 자체를 고마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또 적지 않



은 분들은 귀한 신앙의 터전인 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애정을 보여 주십니다. 지난 2월5일에 독일 교회의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70여 분의 주교님들을 비롯한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230명의 신앙인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눈높이에서 토론하고 기혼 사제의 허용, 주교 선출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참여 등 교회의 변화를 위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독일 교회는 매우 안정되고 넉넉한 교회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 매우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인 각자가 신앙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규모는 작아지리라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맛을 잃거나 빛이 어두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가르침은 논리나 쉼을 떠나서 사랑의 자유를 무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길고 친숙하지만은 않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는 낯설지만, 또한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1요한 4,1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선교지
이야기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주노 대교구



알래스카(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이 만 2년을 넘어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성당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하순부터 약 두 달 정도 성당을 닫았다가, 같은 해 5월 말에 성당을 일부 개방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성당을 다시 닫는 일 없이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봄에는 성당 마당에 새롭게 종탑을 마련하면서, 주일미사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종탑 주변에서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알래스카(미국)

주(州)도 주노

면적 1,717,856km²

인구 710,249명

종교 개신교 37%
가톨릭 16%
몰몬 5%
동방정교회 5%
유대교 0.5%
이슬람교 0.5%

성인 14명

복자 7명

수호 무염시태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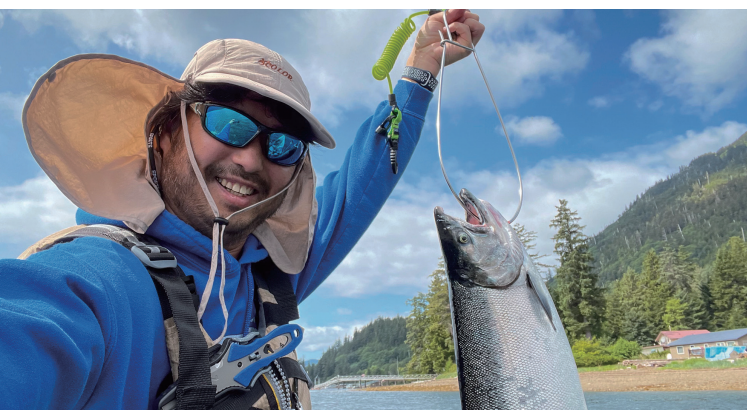
관할 (미국 전체 기준)

구역 동방가톨릭관구 1개, 대
교구 33개, 교구 160개,
군종교구 1개, 성직자치
단(성공회) 1개

좌측 사진의 중앙에 계신 부부는 올해 혼인 6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부부를 기리며 미사 후에 모든 신자가 모여 61번의 타종으로 이 부부의 혼인 61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과 가족이 가까이에 있는 본토로 이사를 하게 되어 모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성당을 위해 참 많은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고, 저 종탐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이 부부의 공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어져, 교구에서 처분한 공소에 있던 종을 그 마을까지 직접 방문하여 찾아오신 건데요. 그 이후에 신자들이 함께 탐을 만들고 색을 칠하여, 본당 예산 지출 하나 없이 아름다운 종탐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어업과 관련한 일도 많은데요. 아래 사진은 어선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해마다 본격 조업 시즌이 시작되는 5월 말경에 섬 전체 행사로 선단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고, 신자들의 배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팬데믹 중에 미사 외에는 본당에서 하는 행사도 없다 보니 이런 기회를 이용해 일부러라도 신자분들을 방문하고 배와 선장, 선원들을 축복해 주며 서로의 안부를 확





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저도 직접 물고기를 낚는 일도 많은데요. 사진은 제가 바다에서 카약을 타면서 직접 잡은 연어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 연어를 20마리도 넘게 잡았고, 직접 훈제도 하여 본당의 모든 신자분에게 이를 나누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작년 초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총 다섯 번의 유아세례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전, 주일미사 참례 50여 명 정도의 작은 본당 기준으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끝으로, 제 가장 최근 근황인데요. 이곳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비롯한 신심 운동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듯, 현지 신자들이 하는 신심 운동에 함께 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콜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최근에 최종 단계인 4단계 기사로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미사 중에 “대기사(Grand Knight)”로부터 4단계 기사의 상징인 어깨띠와 배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간 모두가 힘들어했고, 이제 많이들 지쳐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부분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려 합니다. 머지않아 이 어둠이 완전히 걷히면,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밝게 웃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신광수 베드로 신부

일본 후쿠오카 교구

이토시마 본당

후쿠오카 공항에서 도시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약 45분을 달리면 후쿠오카시 서편에 '이토시마' 시라는 작은 농어촌 도시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 사시사철 수산물이 풍부하고,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어 농산물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자리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토시마시의 논밭 한가운데 이토시마 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읍내와 같은 시내에서 차량으로 12분 거



리이고, 어떤 택시를 타든지 “이토시마 교회로 가주세요.” 하면 당연하게 성당으로 데려다줍니다.

32년 전 세워진 이 성당은 후쿠오카 교구 내에서 가장 젊은 성당입니다. 그 당시 은퇴하신 교구장 주교님께서 ‘장래에 이곳이 시내 중심이 되어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 판단하시어 성당을 세우셨으나, 시내의 중심은 다른 곳이 되어버려서 현재는 한 시간에 한 대의 버스만 지나가는 조용한 시골 성당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적상 신자 수는 430여 명, 코로나 이전 주일에는 70~80명 정도의 신자가 미사에 나왔다고 하며,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40여 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2020년 4월 부임한 이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곳 신자분들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보 성인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으로 성당 제대의 스테인드글라스에 성가정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스에 있는 작가에게 주문한 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만, 신자분들과 스테인드글라스를 본 이들은 모두가 “성모님 표정이 너무 차가워요.”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글라스를 설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 세례자 요한, 성

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치했던 당시 주임신부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며 항변하십니다. 10여 년 전 성당 재건축과 신자 교육관 건축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따뜻하고 아담한 목조의 내부 분위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단순한 ‘결혼식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신자 간의 결혼식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비신자 간의 결혼식도 성당에서 치러주는 곳이 많습니다.) 성당 뒤편의 공동묘지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후쿠오카 교구 본당 중 가장 넓은 성당의 잔디밭은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곳입니다(구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성당의 2층에는 다다미방으로 되어있는 ‘유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유아실을 ‘なき部屋’(나키베아, 한자에 따라 다릅니 다만 ‘우는 방’ 또는 ‘소리 나는 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부릅니다. 목조로 되어있는 건물이라, 아이들의 울음소리라든지 쿵쿵 뛰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물론 이 소리도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나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소리입니다.

이토시마 성당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교중 미





사 중에 2층에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쿵쿵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1층 신자분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웬지 미사가 끝난 뒤, 아이들의 부모가 성당 군기 반장(?) 어르신들에게 불려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2층 쪽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사 뒤에 불려가서 한 소리 듣고 나면 저 젊은 부모들은 앞으로 미사에 안 나올지도… 어떡하나…’라는 분심 속에서 미사를 이어갔습니다. 공지사항 시간이 되었을 때, 제게 한마디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국에는 수많은 아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재잘거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 중 우리는 그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층 유아실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면, ‘시끄러워!’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또한, 무엇보다 아이들의 소리를 성전에서 들을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들 부모에게도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파견 강복을 하고 후다닥 퇴장한 뒤에, 사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괜한 소리 했나? 누가 따지려고 덤비면 어찌지?’ 눈치를 보며 제의방을 나왔을 때는 다행히 군기반장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부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휴우….

“
언제나
아이들의 이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그리고
아이들의 이 소리가
훗날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평일 미사 중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젊은 한 엄마가 아기 둘을 데리고 평일 미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평일 미사에 나오시던 열혈 미사 멤버 어르신들은 제 방침을 알고 계셨기에 2층 유아실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도 미사에 더욱 집중해주셨고, 이 젊은 엄마를 볼 때마다 잘 왔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엄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멀어져 있던 신자였는데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성당에 다시 나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 알게 된 혼인장애도 해소해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매번 평일 미사에 데리고 오는 두 아이의 유아세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일본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유아실인 ‘나키베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방’ 또는 ‘소리 나는 방’이라는 이름처럼 언제나 아이들의 이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그리고 아이들의 이 소리가 훗날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상현 마르첼로 신부

과테말라 산티아고 대교구

찬미 예수님! 과테말라에서 선교 중인 한상현 마르첼로 신부입니다.

한국을 떠나 온 지 일 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8월 즈음에 어학 공부를 끝내고, 먼저 선교 나오신 선배 신부님 본당에서 2달여간 실습 후에 정식으로 보좌 신부 발령을 받고 활동 중입니다.

이곳의 삶은 분명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²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야고보(대)

관할 구역 대교구 2개, 교구 11개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이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기 전 부제 때 짧은 시간 미사 연습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신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미사 전 경본과 강론 등 읽기 연습을 합니다. 그나마 읽는 것은 사전에 연습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가 부족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면담을 할 때 마음 한구석에 외국어 듣기평가 시험을 보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전해 보지 못했던 혼배미사 주례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신자들의 큰 이해심 덕분에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곳 역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가까웠던 신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 듣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불편함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언어가 많이 부족한 제가 이곳 신자들의 큰 이해심과 도움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한국에 계신 모든 분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시간이지길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소회



최우주 필립보 신부

페루, 멕시코 선교 후 귀국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여전히 기분은 선교 중간에 잠시 한국 휴가 나온 기분이면서도 홀가분합니다.

내 나라, 내 문화이기에 익숙하다고 여긴 한국도 그동안 많이 변했고, 저 역시 조금 변했습니다. 다시금 한국 사회의 속도와 분위기에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십 년간의 시간을 떠올리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밖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미 페루에서 시작했던 선교가 멕시코-미국 국경 선교로 이어져 그 여정이 새롭다고만 여겨졌지, 길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면적 1,972,550km²
[세계 13위,
한반도의 약 9배]

인구 1억 2,864만 9,565명
[세계 10위]

종교 가톨릭 82.7%
개신교 6.6%
여호와의 증인 1.4%
무교 4.7%

성인 35명

복자 25명

수호 성인 과달루페의 성모

관할 구역 대교구 19개, 교구 75개
성직자치구 4개
대목구 1개

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선교를 통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만족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해외 선교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관심이 적다고 선교 체험이 무가치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언어적, 문화적 통역) 없이 살 수 없었기에 겸손함을 배웠고, 그들이 내미는 환대의 손길을 체험함으로써 저 역시 누군가를 더 환대하고 사랑하려는 원의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낯선 문화 속에 들어감은 보이지 않는 벽(편견, 오해, 불통)을 허무는 것이고 두 문화에 다리를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우들과의 시간과 신뢰가 쌓일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기에 지금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켠에는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로 선교를 동행해 주신 교구 및 후원회원들의 관심 및 후원에 선교를 외로이 혼자 한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십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선교를 희망할 듯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선교 중인 모든 신부님께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 선교에 관심이 있지만 망설이는 신부님과 신학생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귀국했지만, 선교를 통해 체험했던 ‘다리를 놓는’ 일들을 찾아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걷고자 합니다.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 전하며,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를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21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한상현 마르첼로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경진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김성천 스테파노
	박민서 베네딕토(농인 선교)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서혜 강선경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윤복 강이순 강정애 강정희 강지현 강진선 강초희 강관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고경식 고영임 고윤숙 고의영 고혜숙 객민지 객상원 객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보강 구연모 구지순
 권경애 권성혁 권순주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운기 권익란 권효정 결신영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금자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나현 김난옥 김남균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준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연 김미자 김미재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옥 김민조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규 김상옥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송태 김수남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소희 김승희 김시훈 김신소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연옥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조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옥희 김완식 김요자 김용기 김용해 김용희 김우경 김원선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성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인자 김임숙 김지원 김장득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원 김정용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지연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운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형찬 김혜선 김혜숙 김효준 김효철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성재 나정애 남기완 남승민 남정희 남하현 노금풍 노현주 노혜영 맹미숙 모명자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모 민지희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기철 박남주 박다은 박만기 박명숙
 박미자 박병선 박봉자 박상호 박상희 박설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영주 박옥희 박용자
 박운경 박운숙 박은덕 박은호 박이순 박정남 박정숙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준 박춘옥 박춘지 박태련
 박태안 박태경 박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기인 백명옥 백선혜 백승주
 백용남 백은숙 백일순 백진희 변광국 변신호 변혜숙 서대관 서수용 서수진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옥이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호숙 석정미 성경희 성락숙 성윤석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손희경 송근선 송금선
 송민석 송영남 송미중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상인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용순
 신유리 신윤숙 신재승 신재영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춘요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재영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왕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석 양정훈
 양정희 양하나 염인영 염주영 염지원 연연용 연현현 연현철 오경진 오귀애 오명순 오미희 오복선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환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슬 왕은순
 우영호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기정 유미숙 유 숙 유숙희 유승연 유연웅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지는 유해영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선화 윤소영 윤은희 윤재후 윤지숙 윤치현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기호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동울 이두식 이만수 이명옥 이명혜 이문준 이미경
 이민재 이민주 이방자 이병열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선 이상구 이상귀 이상엽 이상윤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수정
 이숙노 이순금 이순이 이순자 이승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심 이연향 이연희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희 이요한 이용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우진 이은희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령 이재만 이재준 이재찬 이재희 이점우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제현 이종임 이종해 이주환 이준화 이지옥 이지은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창경 이창영 이채미 이철환 이춘자 이태숙
 이태순 이태실 이태종 이한선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현장 이형자 이해영 이 호 이홍재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균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서영 임선혜 임수연 임수주 임순희 임옥연 임옥숙 임정렬 임주연 임태현 임현준
 임혜자 장래영 장명수 장명훈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정아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호숙 전경복 전동원
 전병주 전상아 전성실 전영구 전옥순 전운민 전은경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세훈 정소영 정순이
 정연호 정영선 정옥주 정완식 정용문 정윤순 정윤희 정재현 정정윤 정지인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대양 정대원 정평화 정하영
 정혜원 정홍경 정효남 정희자 제민경 조건용 조경자 조나라 조도연 조무선 조문경 조병희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선미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명훈 차영미 채종서 채현찬 채희정 천봉순 천유진 최강효
 최경선 최경희 최길분 최동철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영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소형 최승한 최영옥 최영호
 최옥경 최옥란 최 용 최은근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정윤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제훈 최준일 최지영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소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희준 추명진 탁정환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기봉 한동수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예 한은비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만옥 허미래 허선아 허영진 허인숙 허희복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해서 홍금선
 홍석준 홍숙희 홍순옥 홍승예 홍승표 홍영덕 홍인자 홍재모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애 황규홍 황순자 황영옥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춘익 김글나라 김미카엘 박미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킹스쿨학원 이행정자임정옥 켄지외이디
 Fr.구본석 Fr.김연범 Fr.김윤상 Fr.박규홍 Fr.박민재 Fr.박우준 Fr.이계호 Fr.이승구 Fr.임삼무 익 명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1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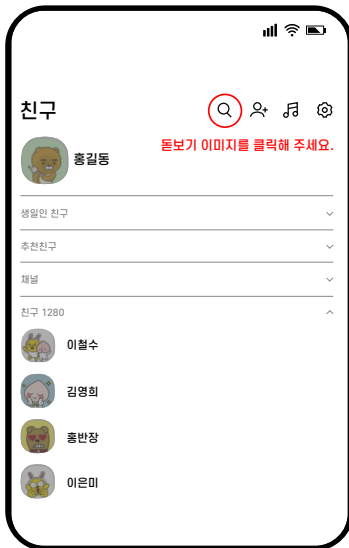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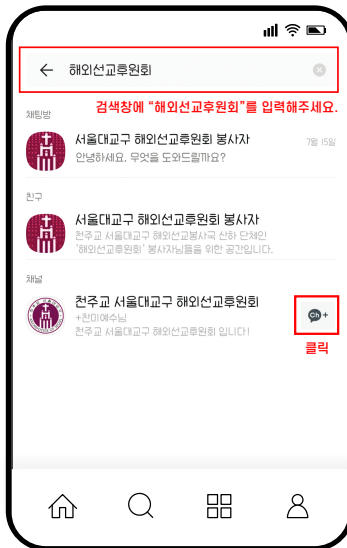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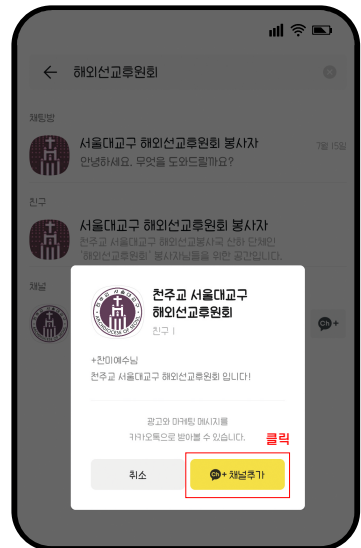
채널 추가 방법 ①



- ①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동보기 이미지 클릭!



- ②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
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③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채널 추가 방법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①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②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③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2년 4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신부

김윤상 프란치스코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일시: 2022년 5월 2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파견사제: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신부(멕시코),
김경진 베드로 신부(대만)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
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
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 mission@seoul.catholic.kr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5월 9일(월), 8월 8일(월), 11월 7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6월 20일(월), 9월 5일(월), 12월 5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